LPG, 8월 공급가격 5% 인하

SK가스, 프로판가스 5.4% 내려 ... E1은 5.6% 내린 1075.4원

전기·도시가스 등의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민연료인 LPG(액화석유가스)의 8월 공급가격은 큰 폭으로 인하됐다.

SK가스(대표 최상훈)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8월 가격을 kg당 62.1원(5.45%) 내린 1077.4원으로 책정했다고 8월1일 발표했다. 또 자동차용 부탄가스는 kg당 64.0원(4.2%) 인하한 1459.9원으로 정했다.

E1(대표 구자용)도 7월31일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8월 충전소 공급가격을 63.6원(5.58%) 내린 1075.4원으로, 자동차용 부탄가스는 64.1원(4.21%) 인하한 1458.9원으로 결정했다.

E1 관계자는 “국제 LPG 가격 및 환율 하락과 경쟁기업의 가격 상황을 고려해 인하폭을 결정했다”고 설명했다.

이에 따라 7월 45~55원 정도 올랐던 LPG 가격은 6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.

LPG 수입기업들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LPG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, 각종 세금,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하고 있다,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8/02>